

[경제]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경기 '내리막'...특수도 '실종'

광주·전남 추석 상여금 지급업체 감소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상여금 지급수준 하락...채감경기 추락=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공인 100명 이상 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을 주는 업체는 71.7%로 지난해 66.7%보다 늘었지만 상여금 지급수준은 기본급 대비 87.4%였던 지난해보다 낮은 86.0%로 집계됐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2천5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로도 상여금 지급업체는 68.2%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증가했지만 100% 이상 지급 업체는 26.6%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감소해 전체적으로 상여금 지급수준은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 줄어든 65.3%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1억4천330만원의 추석자금 필요하나, 자금부족율은 27.2%(3천910만원)에 달했다.

부모없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조손가구는 5만8천가구로 5년 전에 비해 21.9%, 28.5%가 각각 늘어났다. 피가 섞이지 않은 비친족가구도 22만6천가구로 5년 전에 비해 41.9% 증가했다.

국민 44% "추석 안 반갑다"

겉핥기, 1,523명 조사 여성이 더 부정적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꼴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겉핥기에 따르면 8월23일~9월11일 전국 성인 남녀 1천52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3%가 "추석이 다가오는 게 즐겁지 않다"라고 답했다.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가사 노동 부담을 안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과반수(55%)가 즐겁지 않다고 답했다. 추석이 즐겁지 않은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5.8%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으며 가사 노동 부담(21.7%)과 귀찮아서(10.5%), 교통 불편(5.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여기가 나주 친환경쌀 재배단지"

무농약 친환경쌀 재배단지인 나주 이암마을 사람들과 부산 민속주 제조업체인 (주)천년약속 직원 등 200여명이 25일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진 뒤 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나주 친환경쌀은 상항버섯주인 '천년약속'의 원료로 남포품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10만명 돌파

금감원 발표, 적립 금액 2,176억8,000만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8월 말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1만779명으로 전월 말의 9만7천384명에 비해 13.8%, 1만3천395명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형(DB)이 1천27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확정기여형(DC)이 845억7천만원, 개인퇴직계좌(IRA기업형) 303억9천만원의 순이다. 유직금액을 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1천154억1천만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를 달렸으며 다음으로 보험이 799억2천만원, 증권이 223억5천만원을 차지했다.

선박·D램 반도체·LCD 1위

경쟁력 38위·삶의 질 39위

貿協,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6' 보고서

한국이 지난 9월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한국무역협회는 '2006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6'을 발간했다. 우선 경제규모는 7천875억달러로 세계 11위, 교역규모는 5천456억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5위로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국가이미지는 64개국 가운데 41위, 국제경쟁력도 61개국 중 38위에 머물러 기업과 국가간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 3위로 상승했으며, 전자정부 지수에서도 올해 5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력 확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 순위가 6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관광수입·지출통계도 마찬가지다. 수입은 26위에서 27위로 한 계단 하락한 반면, 지출은 15위에서 12위로 세 계단 올라 향후 관광수지 적자의 급속한 확대가 우려됐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최대 민원

"부당요금 청구"

정통부 제출 국감 자료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사업자들의 부당요금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7월까지 통신서비스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는 전체 통신 민원 7만36건 중 28.8%인 2만148건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7월까지 총 민원 1만7천867건 중 부당요금 민원건수는 5천718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초고속인터넷의 부당요금 민원은 2001년 280건에서 2005년엔 1천97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올 7월까지만 작년순준의 80%를 넘는 1천609건을 기록했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Job Position, Salary/Requirements, Start Date, End Date,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H&T, 해원, 동양생명, 한국쓰리엔, 한국주신협, 현대LNC, etc.

최고의 IT 품목은 "지능형 로봇" 누리꾼 선호도 설문 1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부의 IT(정보기술) 육성전략에 따라 선호하는 항목 중 가장 사용하고 싶은 품목은 지능형 로봇(URC)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만 15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2천명을 대상으로 가장 사용해보고 싶은 IT839 품목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능형 로봇이 17.5%를 차지, 최고의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불자 연체 10건 중 1건 교육비 때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옛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10건 중 1건은 '교육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재창 의원과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들의 총 연체발생 건수는 모두 122만7천301건으로 이중 10.6%인 13만353건이 '교육비' 때문이었다.

英 IT 전문지, '올트라 에디션' 극찬

영국 유력 IT 제품 전문지인 '스터프(Stuff Magazine)' 10월호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전략모델 '올트라 에디션'을 '역사상 최고 제품들(The Greatest gadgets ever!)'의 대표 주자로 선정, 커버 스토리로 집중 소개했다고 삼성전자가 25일 밝혔다. 스토리는 '신기록 제조기(Record Breakers)'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얇은 슬림폰으로 올트라 에디션을 선정하고 "아이팟 나노처럼 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은 탐나는 제품"이라고 격찬했다.

'활명수' 발매 109년

연간 생산량 1억병...한국 최古 브랜드



동화약품의 소화제 '활명수(活命水)'가 25일로 발매 109년을 맞았다. 활명수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한국 최고(最古)의 브랜드이자 소화제의 대명사라는 게 동화약품의 설명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처음 개발된 활명수는 이제 연간 생산량 1억병, 연매출 350억원, 시장 점유율(2005년 기준) 60%를 차지하는 거대 브랜드로 성장했다. 제조 성분도 아산약, 계피, 정향 등 11가지 순수생약성분이 들어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배합면에서는 변화됐다. 1966년 기존 활명수에 탄산가스를 첨가한 '까스활명수'가 발매됐으며 1989년에는 '까스활명수-큐'가 나왔다.